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10월 23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무역투자실 총괄기획과 안병화 과장(2110-4535), 황현주 사무관(2110-4538)
김성철 사무관(2110-4542)
통상교섭실 동아시아FTA추진과 유상옥 과장(2110-4461), 박정현 사무관(2110-4464)

제23차 자유무역협정(FTA) 국내대책위원회 개최

- FTA 활용대책, 한·중 FTA 대응방안 논의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.10.23(수) 오전11시 JW메리어트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경태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과 경제단체장, 업종별 협회장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「제23차 자유무역협정(FTA) 국내대책위원회」를 개최하였음

* 붙임 : FTA 국내대책위원회 위원명단 참조

○ 금번 회의에서는 「한·중 FTA 추진동향」을 보고받고, 농업과 수산분야의 「FTA 국내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」을 사전 점검하는 한편, 중소기업이 FTA 활용촉진종합대책을 논의하였음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「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」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

○ FTA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궁금증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 지난 6.24일부터 'FTA 콜센터 1380'을 운영 중이며, 9월말까지 총 3,044건의 상담(전문상담 2,174건*, 일반상담 870건)을 실시

* 원산지증명서 작성(53.4%), 품목분류·세율(28.7%), 원산지결정기준(13.8%), 기타(4.1%)

○ 기업이 FTA 활용 단계별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초보단계, 준비단계, 실행단계로 구분하여 세부 지원과제를 추진 중

< 기업의 FTA 활용 단계별 애로해소 추진현황 >

① **(초보단계)** CEO 인식제고 및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교육 및 사례대회 개최(10.10일), 협력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제3자 확인제도 시범도입(8.27일)

② **(준비단계)** 품목분류 조기심사 요청제도 신설하여 품목분류 판정기간 단축(30→15일, 7월 시행), 재직자 FTA 교육 등 교육현황을 통합공고(7.26일)하여 수요자 편의성 제고, 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급 중

③ **(실행단계)** FTA 활용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방안 마련(10월), FTA 해외활용지원반(공관)을 통해 현지 애로 해소, 사후검증지원센터 개소(5.15일) 및 자가검증툴(FTA-Helper) 개발·보급(10.1일) 등 사후검증 대응 지원

○ FTA 활용실태 분석,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FTA 활용 촉진 종합대책이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종합 점검('13.12월)하고,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함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1단계 협상이 마무리 된 「한·중 FTA 추진 동향」을 보고

○ 2단계 협상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민감산업 보호가 가능하도록 양허안 및 협정문안을 준비하면서, 민감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함

□ 농림축산식품부는「농업분야 국내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」을 보고

○ EU·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보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대책*을 마련하여 추진 중

* 한·칠레보완대책('04.2), 한·EU보완대책('11.7), 한·미 보완대책('12.1)

○ 한·중 FTA 협상 단계부터 대책 수립을 병행하여 시장개방에 대비하고, 수출 유망품목 발굴, 포장기술 개발 등 수출확대를 지원하여 한·중 FTA를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고

○ 전문가, 농업인 단체, 지자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, 매월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대책 수립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

□ 해양수산부는 「수산분야 국내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」을 보고

○ 현재 어업분야 피해보전,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17개 사업*을 추진 중이며, 한·중 FTA에 대한 어민 설명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강화하기로 하였음

* 피해보전 관련 2개 사업, 품목별 경쟁력 강화 관련 15개 사업

○ 어민 체감도가 높고 기존 대책과 차별화 되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을 내실화 하고, 주력품목 개발 및 수출마케팅 지원, 어업인들로 하여금 현지 시장조사와 선진사례 벤치마킹 기회를 확대하여 대 중국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

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"한·중 FTA가 대 중국 수출이 확대되고, 농수산업 등 취약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"이라고 밝히면서

○ 정부 각 부처와 민간위원들이 "각계의 의견이 FTA 협상과 국내 보완대책 마련 과정에 충분히 수렴되도록 소통을 강화하고,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최적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"을 당부하였음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안병화 총괄기획과장(☎ 02-2110-453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 「자유무역협정(FTA) 국내대책위원회」위원 명단

구 분	소속/직위	성 명	비 고
정부위원 (14명) <당연직>	산업통상자원부 장관	윤 상 직	공동위원장
	기획재정부 1차관	추 경 호	
	미래창조과학부 2차관	윤 종 록	
	교육부 차관	나 승 일	
	안전행정부 1차관	박 찬 우	
	문화체육관광부 1차관	조 현 재	
	농림축산식품부 차관	여 인 홍	
	보건복지부 차관	이 영 찬	
	환경부 차관	정 연 만	
	고용노동부 차관	정 현 옥	
	관세청장	백 운 찬	
	중소기업청장	한 정 화	
	국무조정실 국무2차장	고 영 선	
	대통령비서실 경제재정정책담당비서관	주 형 환	
민간위원 (16명) <위촉직> ('13.9.1~ '14.8.31)	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	이 경 태	공동위원장
	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	최 병 일	
	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교수	여 정 성	
	이화여대 사회과학부 교수	김 헌 민	
	서강대 법학과 교수	왕 상 한	
	계명대 사회학과 교수	임 운 택	
	한국무역협회 회장	한 덕 수	
	대한상공회의소 회장	박 용 만	
	중소기업중앙회 회장	김 기 문	
	중앙일보 상무	박 보 균	
	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	김 준 봉	
	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	황 혜 숙	
	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	이 윤 수	
	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	이 재 화	
	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	이 민 재	
	신한관세법인 대표관세사	장 승 희	